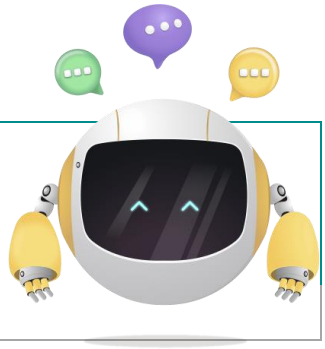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4차산업 포트폴리오

[Tech & Stock] 4차산업 Weekly | 2024.7.29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RA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강교선 kyosunkang@hanafn.com

하나증권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편입 종목	종가	주간변동 (%)	월간변동 (%)	FY1 PER	FY1 EPS	연간 매출액성장률(%)		연간 순이익성장률(%)		실적발표일
						FY1	FY2	FY1	FY2	
삼성전자	80,400.0	(7.5)	(1.1)	14.1	5,706.6	21.2	13.0	165.4	44.1	2024-07-31
알파벳	167.3	(5.9)	(9.1)	21.1	7.9	12.8	11.0	31.3	14.2	2024-10-24
애플	217.5	(3.0)	4.0	32.8	6.6	1.2	7.9	5.1	8.0	2024-08-01
메타플랫폼스	453.4	(4.7)	(11.2)	22.0	20.6	17.9	12.9	39.5	14.0	2024-07-31
마이크로소프트	418.4	(5.0)	(7.2)	35.4	11.8	15.6	14.5	22.0	13.0	2024-07-30
아마존 닷컴	179.9	(2.1)	(3.5)	34.3	5.3	11.2	11.3	85.6	25.4	2024-08-01
엔비디아	112.3	(7.3)	(11.0)	41.1	2.7	97.8	36.0	108.4	37.4	2024-08-28
넷플릭스	634.1	(1.4)	(5.7)	33.1	19.1	14.8	12.2	54.4	18.9	2024-10-18
IBM	192.0	3.6	11.2	19.0	10.1	2.1	4.5	6.4	5.1	2024-10-23
ASML	862.6	(6.7)	(15.7)	42.3	18.8	0.5	33.6	(5.6)	60.5	2024-10-16
TSMC	160.3	(6.7)	(7.1)	25.1	209.7	30.0	23.0	29.6	27.5	2024-10-21
알리바바	75.4	(1.5)	2.2	8.9	61.6	8.5	8.3	(8.6)	12.4	2024-08-09
바이두	87.8	(3.4)	(0.9)	8.0	79.2	2.9	6.4	(5.2)	5.8	2024-08-22
텐센트	351.2	(4.9)	(8.1)	15.7	20.8	9.3	10.0	26.9	12.4	2024-08-14
비야디	234.2	(3.1)	(1.3)	18.3	11.9	24.5	19.6	24.1	25.7	2024-08-12
비자	253.7	(5.7)	(7.2)	25.6	9.9	9.7	10.0	10.2	9.5	2024-10-24
어도비	532.2	(4.4)	1.0	29.3	18.2	10.6	11.4	10.8	11.0	2024-09-12
오라클	137.8	(0.2)	(1.0)	22.0	6.3	9.4	11.0	13.0	14.7	2024-09-11
서비스나우	828.8	12.2	9.8	60.7	13.6	21.7	20.8	28.7	21.4	2024-10-25
세일즈포스	256.5	3.7	6.1	25.9	9.9	8.6	9.2	21.0	11.8	2024-08-30
팔로 알토 네트웍스	320.1	(1.2)	(0.8)	57.4	5.6	16.1	13.9	33.1	13.9	2024-08-19
크라우드스트라이크	254.2	(25.9)	(34.3)	63.7	4.0	30.6	25.7	33.1	22.2	2024-08-30
데이터독	120.3	1.3	1.0	76.8	1.6	22.4	23.2	21.8	23.3	2024-08-08
화낙	4,030.0	(9.8)	(7.7)	29.0	139.1	(0.2)	8.9	(1.9)	21.9	2024-07-29
지멘스	168.3	(1.1)	(0.4)	16.0	10.5	0.8	5.1	3.5	10.3	2024-08-08
슈나이더 일렉트릭	216.1	(2.2)	(4.9)	25.8	8.4	5.5	7.4	16.8	12.4	2024-07-31
이튼	292.9	(5.2)	(9.3)	27.8	10.5	8.3	7.6	27.3	11.9	2024-08-01
일라이 릴리	821.2	(3.3)	(9.2)	60.0	13.7	26.0	23.2	135.6	41.9	2024-08-08
		(3.6)	(4.3)			15.7	14.3	33.3	19.7	

주: 2024.7.25 종가 기준, 주간 변동은 5영업일 기준
자료: Bloomberg 시장 예상치,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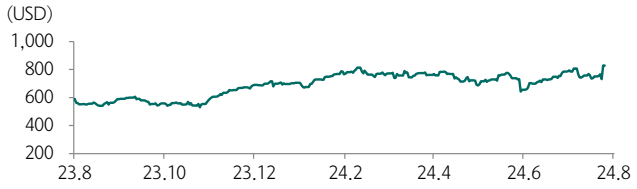
실적 & 이벤트 코멘트 종목

서비스나우(NOW.US), **IBM**(IBM.US), **알파벳**(GOOGL.US), **비자**(V.US), **SAP**(SAP.GR),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서비스나우

상장 국가
미국
산업
IT
시가총액(십억달러)
170

최근 주가 추이



2Q24 Review

2Q24: 외형과 수익성 가이던스 큰 폭으로 상회, 생성 AI 기여 기대보다 높아

- 2분기 외형과 수익성 지표가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 달성. 회원제 기반 매출 25.4억 달러(+23% yoy)로 가이던스 상단을 100 bps 상회했으며, 조정 OPM은 27%로 약 250 bps 높게 달성.
- 향후 12개월이내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단기 잔여계약가치 지표인 CRPO는 87.8억 달러로 22.5% 증가, 가이던스를 200 bps 상회하고 전분기 대비 150 bps 상승.
- 생성 AI 서비스의 실적 기여가 기대치를 상회한 점도 고무적. 생성 AI를 적용한 Pro Plus의 순신규 ACV 기여가 신규 제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추이 이어감.
- Pro 대비 Pro Plus의 가격 상승 효과는 +30%이며 출시 이후 Pro Plus 포함한 평균 계약 규모는 Pro 업그레이드와 비교하면 3배 넘는 규모.

비수기임에도 장기계약 확대로 평균 계약 기간 기록 경신, 정부향 계약 모멘텀 주목

- 기업들이 IT 계약 체결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다수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약 지연과 규모 축소를 언급한 것과 달리 서비스나우는 계약 체결 관련 신기록 경신중.
- 장기계약 체결이 크게 증가하면서 5년 이상 장기 계약의 전체 계약 규모가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분기 기준 평균 계약 기간이 2018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 장기계약 증가와 계약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RPO (전체 잔여 계약 가치) 성장이 31.5%로 지난 수년내 최고치.
- 주목하는 점은 2분기가 평소 연방 계약 체결 비수기임에도 계약체결 실적이 좋아서 미 연방 정부향 순신규 ACV가 전년동기대비 50% 넘게 증가.
- 서비스나우는 연방 계약 최대 분기인 3분기에 연방 정부향 계약 체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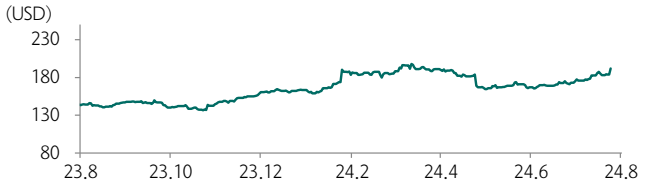
생성 AI 계약 파이프라인 고무적, 소프트웨어 Top Pick 입증

- 2분기 선전을 반영하여 2024년 매출과 조정 OPM 가이던스를 상향조정.
- 달러강세로 2천만 달러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고도 2024년 매출 가이던스를 1.3천만 달러 올려 22% 성장을 전망하고, OPM은 29.5%로 상향조정. 3분기 CRPO 성장 가이던스는 22%.
- 2분기에 예상대비 선전한 부분에서 일부 조기 계약 갱신을 고려하고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추정한 점을 고려하면 3분기에도 Beat & Raise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 지난 5월초에 진행한 Knowledge 2024 연례 컨퍼런스 이후 두 달 동안 계약 파이프라인이 50% 증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
- 특히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계약 파이프라인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와 2025년 계약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생성 AI 실적 기여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나우가 소프트웨어 Top Pick임을 다시 한번 입증.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

IBM

상장 국가
미국
산업
IT, 컨설팅
시가총액(십억달러)
176

최근 주가 추이



2Q24 Review

2QFY24 주요 실적 지표

- 2분기 매출액 157.7억 달러(+2% yoy, CC 기준 +4%), 조정 EPS 2.43달러(+12%)로 컨센(156.2억, 2.20)을 모두 상회.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부문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으며 컨설팅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속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영업 레버리지 효과, 제품 믹스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조정 OPM은 전년 동기 대비 200bp 개선된 10.8% 기록
- **[소프트웨어]** 매출액 67억 달러(+7%)로 컨센(65억) 상회. 레드헷 +7%, 자동화 +13% 등. 올해 소프트웨어 사업부 매출의 성장 동력은 레드헷. 레드헷의 연간 계약 성장률은 20%를 넘어섰음. 이번 분기에 인식된 매출의 대부분의 구독 계약이 3분기와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CRPO는 mid-teens로 성장
- **[컨설팅]** 매출액 52억 달러(-1%)로 컨센(53억) 하회. 고객사의 우선순위는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계약된 프로젝트는 공급망 변화, 클라우드 현대화, 앱 개발 등. 수주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 다만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경기에 민감한 모습이 지속
- **[인프라]** 매출액 36억 달러(+1%)로 컨센(35.6억) 상회. IBM Z 매출은 8% 증가. Z16은 출시 된지 2년이 넘었으며 이전 제품 대비 양호한 매출 사이클 기록하는 중
- 생성 AI 관련 비즈니스 계약은 누적 20억 달러 이상으로 언급해 지난 분기(10억 달러 이상) 대비 큰 폭으로 증가. 대략 25%는 소프트웨어, 75%는 컨설팅 관련. 소프트웨어에는 Apptio(2023년 인수)나 WatsonX 플랫폼에 AI가 적용. 올해 4월에 인수를 발표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HashiCorp에서도 AI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컨설팅에서는 고객사에게 AI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인프라에서도 IBM Z 서버는 실시간 AI 추론 기능을 갖춤
- IBM의 AI 모델 명칭은 'Granite'. 30억~340억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며 116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훈련됨. 대규모 모델(GPT-4는 5,000억 파라미터) 대비 비용 효율이 높으며(약 90% 저렴)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장점
- IBM의 AI 전략은 플랫폼을 통한 통합. 레드헷의 RHEL AI(Red Hat Enterprise Linux AI) 오픈소스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IBM Granite을 포함해 다양한 모델 사용이 가능. Openshift 연간 계약 성장은 40%를 넘었으며 RHEL과 Ansible 상장도 두 자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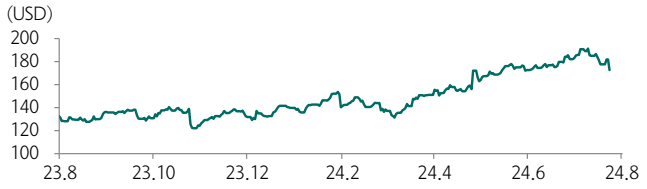
Outlook

- FY2024년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로 CC 기준 mid-single-digit 성장을 유지. 사업부별로 **소프트웨어**는 경상 매출 증가와 생성 AI 영향으로 연간 high-single digit 성장으로 소폭 상향조정(기존 slightly above the high end of mid-single-digit). **컨설팅**은 경기 민감 프로젝트에 대한 부진 영향으로 기존 mid-single-digit에서 low-single-digit으로 하향조정. **인프라**는 상반기 호실적을 반영해 기존 전년대비 감소 전망에서 flat 으로 상향조정
- 연간 FCF 가이던스를 기존 12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 팔로알토(PANW)에 Q레이더 보안 플랫폼을 매각하며 현금흐름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관련 비용 발생으로 대부분 상쇄

알파벳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인터넷
시가총액(십억달러)
2,079

최근 주가 추이



2Q24 Review

2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시장은 유튜브 광고 매출 성장 둔화에 반응

- 알파벳 2분기 실적은 검색광고와 클라우드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 성장을 이끌면서 전체 매출과 EPS는 컨센을 상회.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소폭 하락한 이유는 유튜브 광고 매출이 컨센을 하회하고 AI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서 3분기 영업마진 약세를 전망한 점
- 실적 발표 전 시장에서 우려한 검색 광고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 유튜브 광고 매출은 지난 1분기 +21% YoY에서 2분기 +13%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예상치를 하회. 둔화 이유는 1분기의 경우 기저효과(전년동기 매출 감소)가 크고 윤년 효과가 더해진 반면 2분기부터는 역기저효과 (전년동기 중국 리테일 사업자의 광고 집중 집행)가 시작되고 환율 영향이 더해짐. 유튜브 쇼츠의 시청 시간 증가로 수익화 갭을 줄이고 있으며 CTV 광고 모멘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기별 기저/역기저 영향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알파벳은 비용 기반을 재조정하는 전략을 시행 중으로 2분기 영업이익률은 32.3%로 컨센(31.4%)을 상회. 3분기에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되어 감가상각비 증가와 픽셀폰 론칭 비용 등이 영업마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24년 연간 기준 전년대비 마진 개선을 기대하는 기존 전망은 그대로 유지
- 생성AI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에 시장에서는 생성 AI의 매출 기여와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 검색광고에 생성 AI 기능을 추가한 AI Overviews가 향후 적용 지역과 규모를 키우면서 단계적으로 확장되며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 그러나 수익화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생성 AI의 구체적인 실적 기여와 기존 사업에 대한 영향 파악은 단기적인 쟁점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구글의 광고 사업에 생성 AI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장 일각의 우려만큼 기존 검색 광고 위축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반대로 새롭게 론칭한 생성 AI 서비스가 광고 매출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일 걸릴 것으로 전망. 하반기에 역기저효과(중국 리테일 광고 집중 집행)와 비용 발생 시점 차이 등이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견고한 광고 사업 지속,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에 따른 수혜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주가 흐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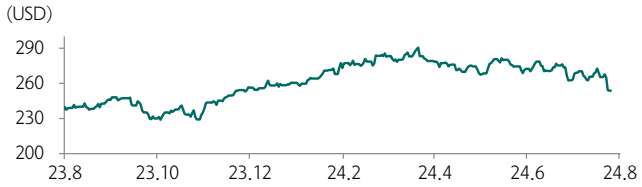
검색광고, AI, 클라우드 관련 주목할 점

- 구글은 생성 AI 기능을 검색 서비스에 적용한 AI Overviews를 미국에서 론칭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서비스 론칭을 계획. 현재 단계에서 AI Overviews에 대한 목표는 서비스 퀄리티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전략. 현재는 AI Overview 섹션 위와 아래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AI Overviews 섹션 안에서 검색과 쇼핑 광고를 테스트할 계획. 구글의 AI 기술 축적과 전략적 노력 등을 고려하면 AI Overviews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수익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103억 달러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전년동기대비 29% 증가, 전분기(28%)대비 성장 가속화를 이어감. IaaS 서비스인 GCP 매출 성장은 전체 클라우드 매출 성장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클라우드 OPM은 11%로 전분기(9.4%) 대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 정상화가 1분기 대비 더욱 본격화 되었으며 레거시 IT 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IT 자원을 이전하는 '클라우드 전환'이 올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클라우드 사업자 Big 3 모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 2분기 Capex 132억 달러로 1분기 120억 달러 대비 상승하며 컨센을 상회. 3~4분기에는 기존 전망치인 120억 달러 내외 수준을 계획. 생성 AI 관련 Capex 투자와 관련하여 알파벳은 현재가 기술 전환기의 초기 구간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투자 과잉이 투자 부족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입장. 인프라 투자인 만큼 향후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중장기적으로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견해를 밝힘

비자

상장 국가
미국
산업
결제
시가총액(십억달러)
545

최근 주가 추이



3Q24 Review

미국 결제금액 성장 둔화와 Cross-border 여행 회복 속도에 주목

- 비자의 FY24년 3분기(6월결산) 매출과 주요 결제지표가 가이던스 하단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 실적 발표 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던 우려 요인인 '미국 결제금액 성장 둔화'와 '아시아 여행 회복 예상 대비 부진' 관련하여 3분기 실적이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
- 3분기 미국 결제금액 성장은 5%로 전분기 6% 대비 하락했으며 7월 3주 동안은 4%로 둔화. 비자는 3분기 성장이 2분기 대비 하락한 것은 2분기 윤년 효과 때문이며 제외할 경우 비슷한 추이 유지. 7월 3주 성장 둔화는 허리케인을 포함한 날씨, 할인 이벤트 행사 시점, IT 대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4분기 전체적으로는 견고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Cross-border 결제 금액 성장은 14%로 이커머스 결제 강세가 견인. 아시아인의 아웃바운드 여행 증가 속도가 2분기 대비 감소하며 여전히 매크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소비자 결제 매출은 다소 아쉬운 부문이 있으나 New flow(B2B, P2P) 매출액은 18% 성장하며 2개 분기 연속 선전하고 있고, 기업향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은 23% 성장하며 22억 달러 달성한 점은 고무적
- 1)가이던스 추정에서 신뢰도가 높은 비자 경영진이 FY24년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4분기 개선 기대감을 높임, 2) 주가에 우려가 이미 반영되며 YTD 기준 부진하여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3) 하반기 금리 인하 환경에서 소비자 결제 개선 기대 등을 고려하면 주가 업사이드는 높은 것으로 판단. 그러나 미국 결제 지표 개선과 Cross-border 여행 지표 회복 등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기 까지는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3분기 주요 실적 지표 상세

- 순매출액 89.0억(+10%yoy), 조정 EPS 2.42 달러(+12%). 컨센은 각각 89.2억 달러, 2,42 달러. 미국 결제금액 5%(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금액 각각 +5%), 해외 결제금액 10% 증가하며 글로벌 결제액 7% 상승, 전분기(+8%) 대비 소폭 둔화. 미국 내 고소득자 결제금액 성장 추이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이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가 일부 둔화된 모습을 보임. Cross-border 결제액은 전분기(+16%) 대비 성장 폭이 감소된 14% 기록했으나 여전히 견조한 수준.
- 매출 항목 별 지표는 결제 서비스 매출 +8%, 데이터 처리 매출은 결제 건수(+10%)가 전분기 수준 유지하면서 +9%. 해외 결제 매출은 +9%로 Cross-border 결제금액(+14%)과 차이를 보인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
- New Flow 매출액은 Visa Direct 거래 건수(+41%)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18% 기록. 기업향 부가가치 서비스(발급&승인 자문 솔루션 및 서비스) 매출액은 +23% 증가한 22억 달러.
- 조정 영업비용은 G&A와 올림픽 관련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14% 증가한 29.3억 달러로 컨센(29.1억 달러) 소폭 상회.
- 조정 순이익은 49.1억 달러(+9%) 기록하며 컨센(49.0억 달러) 부합

FY24년 가이던스

- 4분기 가이던스는 결제금액과 결제 건수는 각각 3분기 수준(+7%, +10%)로 전망, Cross-border 결제 성장률은 3분기 수준보다 소폭 감소 예상. 환율 변동성은 최근 4년래 최저치 수준으로 3분기 수준으로 전망
- 4분기 순매출액은 3분기 10%에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11~12% 정도로 시사, 조정 EPS는 13%로 전망
- 환율 변동성이 예상보다 더 낮아지고 아시아 매크로 상황이 결제금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FY24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 유지. 순매출액은 10~13%, 조정 EPS는 11~13% 성장 전망

SAP

2Q24 Review

주요 실적 지표

- 2분기 실적은 온프레미스 고객의 클라우드 SaaS 전환 추이가 지속되며 1분기에 이어 Cloud ERP 부문의 고성장세 유지. SAP Business AI 기능에 대한 고객 수요도 증가. SAP 고객은 Business AI 기능을 통해 공급망과 재무적 위험에 관하여 식별, 사업을 최적화 해나가고 있음.
- 2분기 매출액은 Cloud ERP suit의 견조한 성장으로 83억 유로(+10%yoy) 기록, 컨센(82억 유로) 상회. 조정EPS는 1.10 유로 기록하며 컨센(1.09 유로) 소폭 상회.
- Cloud ERP suit 매출은 34억 유로(+33%)를 기록하면서 10개 분기 연속 +30%를 상회하는 성장률 달성. Cloud ERP suit 매출을 포함한 SaaS/PaaS 부문 매출액은 40억 유로(+28%)로 컨센(30억 유로)을 33% 상회. 클라우드 부문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클라우드 계약 잔고는 148억 유로(+28%)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 매우 높아진 상황.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은 온프레미스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 추이 유지되면서 2억 유로로 28% 감소.
- 클라우드 부문의 GPM은 73.0%로 전년동기(71.1%), 전분기(72.5%) 대비 지속 개선. 조정 영업이익은 매출의 성장 가속화와 2024년 사업 전환 프로그램을 통한 비용 효율화로 19억 유로(+33%) 기록하며 컨센(18억 유로) 8% 상회.
- 잉여현금흐름은 13억 유로(+114%)로 시장 예상치를 약 2.8배 상회. FCF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1)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대부분 하반기로 집중된 시기적 요인, 2) 수익성과 운전자본 관리가 개선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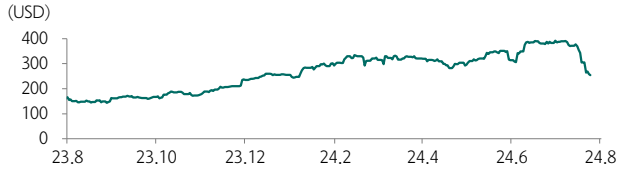
연간 가이던스

- 2024년 연간 가이던스 유지. 클라우드 매출 가이던스 170~173억 유로(CC기준 +24~27%),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매출 가이던스는 290~295억 유로(CC기준 +8~10%). 조정 영업이익은 76~79억 유로(CC기준 +17~21%), FCF 약 35억 유로, 유효세율은 32%
- SAP는 상반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연간 목표 제시. 2025년 연간 클라우드 매출은 21.5억 유로 이상으로 제시하며 총 매출액은 375억 유로 이상으로 전망, 컨센(376억 유로) 부합. 조정 영업이익 연간 가이던스는 102억 유로로 제시, 시장 예상치(100억 유로) 상회
- 온프레미스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 지속, SAP business AI 기능을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로 성장 가속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62

최근 주가 추이



IT 대란 발생에 따른 영향

업데이트 오류로 대규모 IT 대란 발생

- CRWD의 팔콘 센서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하면서 지난 18일(미국시간)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IT 대란 발생하여 공항, 통신, 은행, 방송사 등이 시스템 마비로 큰 혼란 야기. CRWD가 업데이트 파일에서의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긴급 조치 방안을 배포하여 시스템 먹통에 따른 혼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
- CEO 쿠르츠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SNS를 통해 사과하고 해결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입장을 밝힘. 이번 사건이 사이버 공격이나 보안 문제가 아니며 고객사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강조
- CRWD는 이후 포스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이 업데이트 파일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테스트 소프트웨어 때문이며 향후에는 업데이트 테스트를 더욱 철저히 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미지에 타격, 추가적인 노이즈 가능성

- 이번 IT 대란 발생은 CRWD의 명성에 타격을 줌. 사이버보안 전문 사업자로서 보안 종목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잘 알려진 인기 종목이나 일반 대중적인 지명도는 높지 않은 상황에서 IT 대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됨
- 사건 발생 후 CEO가 바로 SNS 포스팅으로 빠르게 문제점을 사과하고 주요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
- 미국 의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CRWD의 CEO를 청문회에 소환하고, 피해 보상 관련 법적 이슈 등이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관련 이슈에 대한 뉴스 등이 노이즈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중장기 전망 유효

- 지난 5일 기준 CRWD 주가는 -26%, 반대로 엔드포인트 보안 부문 주요 경쟁사인 센티널원(S) 주가는 +11%
- 이번 문제가 업데이트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비난 받을 것으로 보이나 CRWD의 보안 플랫폼과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경쟁력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과 특히 단일 플랫폼을 통해서 엔드포인트 보안,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등 여러 주요 분야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CRWD의 강점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
- 과거에 대형 IT 기업들이 단순 처리 오류로 대규모 먹통 사태를 겪었던 선례들도 단기적인 이슈 정도에 그쳤음
- IT 대란 관련 단기적으로 추가 노이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이버보안 산업에서 지배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CRWD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4차산업 1등주 주간 주요 뉴스

메타플랫폼즈 (META.US)	**Meta Quest 4 headset 출시 계획** • 메타는 Meta Quest 4를 기본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으로 2026년 내 출시 출시할 계획. 각 버전은 내부적으로 Pismo Low와 Pismo High라는 코드명으로 개발중. • La Jolla라는 코드명으로 개발중인 하이엔드 버전의 기기는 2027년 출시가 목표, 애플의 Vision Pro와 전략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짐
	EssilorLuxottica와 지분 투자 협의 • 메타는 Ray-Ban의 모회사 EssilorLuxottica에 대한 지분 투자를 위해 협의를 진행중 • 투자 규모는 47.3억 달러로 EssilorLuxottica 기업가치의 5% 수준. • 지분 투자 추진 이유는 기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지난해 출시한 메타의 Ray-Ban 스마트 안경이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매진된 제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짐.
	Llama 3.1 출시 • 메타는 Llama 3을 선보인지 3개월만에 Llama 3.1 버전 출시. Llama 3.1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매개변수 개수에 따라 Llama 3.1 405B 버전, Llama 3.1 70B, Llama 3.1 8B 버전으로 구분하여 출시. • Llama 3.1 405B는 4050억 개의 파라미터로, 대규모 다중작업 이해 평가에서 OpenAI의 GPT-4o와 Anthropic의 Claude 3.5 sonnet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메타 CEO Mark Zuckerberg는 Llama 3.1가 현재까지 공개된 가장 진보된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며, 내년에 발표할 Llama 모델은 가장 진보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아마존닷컴 (AMZN.US)	**Amazon Prime Day 2024** • Adobe Analytics에 따르면, Amazon Prime Day 2024에서 미국 쇼핑객으로부터 발생한 총 매출액은 142억 달러(+11%yoy)를 기록한것으로 분석됨. • Prime Day가 신학기를 대비하여 관련 용품을 대거 구매하는 시기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아마존 또한 Prime Day 기간 내 총 매출액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힘. 아마존에 따르면, 생성AI를 통해 제품을 추천하는 쇼핑 도우미 'Rufus'가 Prime Day 기간 매출 신기록에 기여. • Numerator에 따르면, 35,500개 이상의 가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 주문 규모는 57.97 달러로 전년대비 7.3% 증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4년 7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24년 7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